



KIA 타이거즈 김호령이 지난 17일 열린 kt와의 홈경기에서 1회 2사 만루에서 싹쓸이 2루 타를 때려낸 후 포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늦게 피어난 꽃이 더 강렬하다 늦깎이 베테랑 김호령이 그렇다

KIA '잇몸 야구' 든든한 버팀목... '클러치 사나이' 김호령

공수겸장 맹활약...타율 3할·주간타율 1위 '뜨거운 6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호령이 '클러치 사나이'로 떠오르고 있다. 승부처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로 급부상하며, 팀 기둥으로 우뚝 섰다. 김호령은 지난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1회 말 2사 만루에서 상대 선발투수 헤이수스를 상대로 싹쓸이 2루타를 터뜨리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었다.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이날 김호령은 4타수 1안타 1득점 3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10-3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수비에서의 화려한 플레이도 돋보였다. 팀이 4-0으로 앞선 2회초 무사 2루 위기에서 중견수 앞 안타가 나왔지만 홈으로 쇄도한 2루 주자를 정확한 송구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을 막았다. 상대의 추격 흐름을 끊는 완벽한 보살이었다. 이처럼 공수 양면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그는 주전들이 대거 빠진 KIA '잇몸 야구'를 지탱하는 핵심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시즌 32경기에 출전한 그는 타율 0.256, 11득점, 11타점, OPS 0.693을 기록 중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6월 들어 타격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5월까지 0.227이었던 타율은 6월 들어 3할대 (0.300, 40타수 12안타)로 경중 뛰었다. 지난주에는 주간 팀 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게다가 6월 팀 내 최다 2루타(5개)를 기록 중이며 득점권 타율은 0.381로 팀 내 2위다. 특히 지난 11일 삼성전에서는 2-2로 팽팽하던 6회 2사 만루에서 2타점 결승타를 때리며 '해결사' 기질을 뽐냈다. 주로 하위 타선에 포진하며 공격의 연결고리이자 득점의 기폭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이다. 2015년 KIA의 2차 10라운드 (전체 102순위) 지명을 받고 입단한 그는 프로 11년 차의 베테랑이다. 데뷔 초 두 시즌 (2015-2016년) 연속 100경기 이상 출전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고, 긴 백업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뛰어난 수비력과 주루 센스를 갖췄지만 타격이 약점으로 꼽히며 좀처럼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했다. 하지만, 올 시즌 KIA 주전 야수 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외야 수비 안정화 차원에서 투입된 그는, 기대를 뛰어넘는 공수 활약으로 흔들리는 팀의 버팀목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다. 나이 30대 중반을 향해서는 김호령에게 이번 시즌은 선수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수년간 무대 뒤에 머물렀던 이 베테랑 외야수는, 이제는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선다. 과거 수비와 주루로만 평가받던 그는, 이제 공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팀 사정에 따라 투입된 대체 자원이 어느새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그의 반전 드라마는 지금, 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다. 팬들의 응원과 기대 속에 또 어떤 야구 인생의 새 장면을 써 내려갈지, 김호령의 다음 페이지에 시선이 쏠린다. /주홍철 기자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팬 투표 오늘 개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현역자 선정을 위한 팬 투표와 미디어 투표를 19일 시작한다. 'K리그 명예의 전당'은 한국 프로축구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K리그의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 2023년 신설됐다. 제2회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정운, 김도훈, 김병지, 김은중, 김주성, 김현석, 데안, 라데, 박경훈, 사샤, 서정원, 신의손(사리체프), 고(故) 유상철, 윤상철, 이은재, 이태호, 정용환, 최강희, 최

진철, 황선홍(이상 가나다순) 20인이 후보로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투표(40%), 구단 대표자 투표(20%), 미디어 투표(20%), 팬 투표(20%)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4명이 최종 현역자로 결정된다. 팬 투표를 원하는 팬들은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이후 메인 화면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습뉴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후반기 새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며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문성 제고·현장 체육인 참여 기회 확대

전남도체육회, '변화와 혁신' 후반기 위원회 구성...위원 171명 위촉

전남도체육회가 민선 27기 후반기 각종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8일 민선 27기 후반기 새로 구성된 171명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기존 위원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능에 따라 일부 위원을 재배정하고, 군 단위 체육인 추천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스포츠교육위원회 등 15개 위원회에 소속돼 전남 체육 발전

을 이끌게 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며 의미를 높였다. 이어진 시간에는 전남 체육 진흥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건의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나누는 등 실질적인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송진호 회장은 "앞으로도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제안을 체육행정에 폭넓게 반영해 도민 건강 증진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며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열린 체육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아 태극마크를 달고 훈련 중인 광주출신·소속 선수들을 격려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홍빈, 정다연, 이승윤, 안산, 전갑수 회장, 김수린, 서아루, 송채연, 문건영 <광주시체육회 제공>

빛고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 주역으로 우뚝 서길

광주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서 '구슬땀' 광주출신·소속 선수 격려

광주시체육회가 태극마크를 달고 구슬땀을 흘리는 광주소속·출신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8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협회 부회장단, 이사, 종목단체 회장, 현장 지도자들이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 빛고을 명예를 걸고 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체육회 방문단은 이날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산악 최홍빈(더 숲), 수영 정다연(광주시체육회), 양궁 이승윤(남구정)·안산(광주은행 테넨양구단)·김수린(광주시청), 핸드볼

서아루(광주도시공사), 체조 송채연(광주체육중)·문건영(광주체육고·충남체육회)이 함께 한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여러분은 개인의 명예, 소속팀의 명예, 광주의 명예를 넘어 자랑스런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주역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공감하고 열려있는 좋은 환경에서 개개인의 기량을 극대화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획을 긋는 선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곁에는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체육인들이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선수들 모두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원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수 선수촌장은 "함께 지리한 체육을 사랑하는 체육인 모두 비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는 장기적인 육성차원에서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상비군, 꿈나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열린 행정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체육인 결의로 한발 더 나가서겠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선수 격려를 마치고 양궁, 핸드볼, 탁구, 육상, 빙상 등 종목별 훈련시설을 돌아보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희중기자

광주 소속 강선희, 월드 보치아컵 '金'

최아영은 2개 대회 연속 銀

광주 소속 보치아 국가대표 강선희(한전KPSI)·최아영(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이 2025 베이징 월드 보치아컵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강선희는 지난 9일부터 열린 이번 대회 BC3 여자 개인전 4강에서 싱가포르 선수를 5-1로 꺾은 데 이어 결승에서 일본 선수를 4-2로 제압하며 개인전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최아영은 BC2 여자 개인전 4강에서 일본 선수를 8-1로 이겼지만 결승에서 홍콩 선수에게 6-0으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강선희는 2022년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후 항저우 아시안게임 복식 금메달, 파리 패럴림픽 복식 은메달 등을 따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개인전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최아영은 국가대표 첫 해인 올해 태국 파타야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개인전 은메달을



2025 베이징 월드 보치아컵에서 금메달을 따낸 강선희(가운데)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따며 BC2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박희중기자